

# 尹대통령 총선 첫 반응에 야권 '실망감'

### 尹 “더 낮은 자세로 저부터 민심 경청할 것” ‘서민의 삶’ 더욱 세밀하게 못 챙긴 점 자성 민주 “국정 변화 기대한 국민 철저히 외면”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몇새 만에 첫 반응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변명만 늘어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

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

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 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

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며 “결국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는 페이스북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국무회의의 주제 모두발언이 아니라 국민·언론인과 대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봐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김진수기자

## 여야 “안전한 나라 만들 것” 약속

### 정치권 세월호 10주기 맞아 한목소리 강조

여야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6일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2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5월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의 행정, 안전과 관련한 직무 윤리와 모든 시스템이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제 스물여덟이 된 그나이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돌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적었다.

/김진수기자

## 민주 원내사령탑 물밑 경쟁... 후보군만 두 자릿수

### 친명계 유리한 고지... 4선 김민석·서영교, 3선 김병기·박찬대 등 하마평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 진용을 갖추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반을 점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누가 차기 원내대표가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둘째 주(7-1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내대표는 통상 3·4선이 맡는 것이 관례로, 총선 압승 결과 3·4선 고지에 오른 당선인만 44명이다.

이들 중에는 일찌감치 당선인들과 두루 접촉하며 원내대표직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친명(친이

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만큼 유력 후보군에는 우선 친명계가 주로 거론된다.

4선 중에서는 김민석·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대승에 기여한 덕분에 호평이 나온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2년간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3선 중에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박찬대 의원이 우선 거명된다.

김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전반적인 공천 실무 작업을 맡았고, 박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의 신망이 두텁다.

여기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과 신명(신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선명하게 싸우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친명계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관철하고 여야 간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파 색깔이 너무 짙지 않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선에 성공한 한 의원은 “원내 협상에서의 지나친 강경 기조가 정쟁으로 비친다면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대화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선 중에서는 남인순, 박병계, 한정애 의원이 비교적 계파색이 얇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남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박 의원은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3선 중에는 강훈식·박주민·송기환·조승래·진성준·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했고, 박·송·진·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여야 협상에 밝은 편이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현 정부 방송·통신 정책 비판의 일선에 섰다.

/연합뉴스

### 국힘, ‘실무형 비대위’ 꾸리기로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

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

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은 늦어도 5월 10일 이전에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합당도 결의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